

## VI 사회(社會)·문화(文化)

### VI 사회(社會)·문화(文化)

#### 1. 삼문(三文)

대궐이나 공해의 앞에 있는 문을 삼문이라고 하는데 중앙에 정문(正門), 동쪽에 동협문(東來門), 서쪽에 서협문(西來門) 등 대문 셋이 나란히 달려 있는 문이다.

공해란 관가(官家)소유의 건물을 말하며 오늘의 관공서 건물에 해당된다. 조선왕조 시대에 공해에 딸려 있던 삼문으로는 온양군(溫陽郡) 동헌(東軒) 앞의 온주아문(溫州衙門)이 온양시 읍내동에 남아 있고 아산현(牙山縣)의 동헌앞에 있던 여민루(廬民樓)가 아산군 영인면 아산리에 원형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공해의 삼문을 출입할 때에는 동협문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는 서협문을 통하게 되어 있으며 중앙에 있는 정문은 그 공해의 책임자인 관장(官長)이나 또는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상사(上司)만이 출입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암행어사가 정식으로 관가에 출도(出道)할 때에는 마패(馬牌)를 든 역졸(驛卒)을 앞세우고 삼문앞에서 정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 2. 홍살문(紅箭門)

능(陵)·원(圓)·묘(廟)·궁전·관아 등의 자연 진입로(進入路)에 세우는 붉은 칠을 한 문을 홍살문이라고 한다. 동근 기둥 2개를 세우고 지붕이 없이 붉은 살을 죽 박았다. '홍분(紅門)' 또는 '홍전문(紅箭門)'이라고도 부른다.

온양·아산지방에 현존하는 홍살문은 온양시 읍내동 소재 온양학교, 아산군 영인면 아산리 소재 아산향교,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소재 신창향교, 아산군 염치읍 백암리 소재 현충사(顯忠祠)에 남아 있을 뿐이다.

#### 3. 하마비(下馬碑)

조선왕조시대에 궁가(宮家)·종묘(宗廟)·문묘(文廟) 등의 앞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도보로 걸어서 가야 했으며 말을 탄 사람은 말에서 내려야 했다. 왜냐하면 그곳은 신성하고 존엄한 곳이기 때문에 말을 탄 채 지나가는 행위는 불경(不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지점에서 하마비(下馬碑)를 세웠다.

하마비는 한자로 '下馬碑'라고만 돌로 새겨 놓은 것도 있도 또 '大小鼻皆下馬'라는 글귀를 조각해 놓은 돌비석도 있다. 그 뜻을 풀이하면 '누구든지 이 앞을 지날 때 말에서 내려라'는 명령문 이다.

이 고장에서는 온양향교, 아산향교, 신창향교의 홍살문 앞 진입로 쪽에 하마비가 서 있다.

#### 4. 봉 수(烽燧)

봉수는 봉수(烽火)를 울려 난리가 일어났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이 봉수제도는 신라 시대부터 있었는데 조선왕조때에는 전국에 600여 군대의 봉수대(烽燧臺)가 있었다. 어느 방면에서 불을 올리면 계속 전해져서 서울까지 오게 되는데 평상시에는 매일 초저녁에 불을 올렸고 만약 올릴때에 아니 올리기나 아니 올릴 때에 올리면 그 방면에 변이 있는 줄을 짐작하게 된다.

올리는 도수(度數)는 평상시에는 한번 적이 나타나면 두 번 적이 국경에 접근하면 세 번, 국경을 침범하면 네 번, 접전하면 다섯 번을 올린다. 불빛을 이용할 수 없는 낮에는 토기甕을 태워서 곧게 올라가는 연기를 이용하였으며 날씨가 흐리기나 배가 와서 연기를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특사(特使)가 말을 타고 달려가서 상황을 보고 하였다.

봉수를 봉화, 연화(煙火)라고 하며 봉화를 올릴 수 있게 만든 시설을 '봉화독' 또는 '봉화대(烽火臺)', '봉수대(烽燧臺)', '봉대(烽臺)', '연대(煙臺)' 등으로 부른다

##### ▷ 연암산 봉수대(燕岩山 烽燧臺)

아산군 음봉면 관내의 중앙부에 위치한 연암산은 남으로는 동암리, 북으로는 원남리, 두 마을 의 경계에 있는 웅장한 산인데 이 산의 정상에 제비집 모양으로 생긴 큰 바위가 있어 '제비바위' 또는 '연암(燕岩)'이라고 한다.

이 연암산 '제비바위'옆에 봉수대(烽燧臺)가 있었는데 둘레 70m, 높이 1.5m, 폭 22m, 넓이 370㎡의 석축으로 되어 있다. 지금은 봉화독이 모두 허물어져서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며 제비바위 위에 수백년 묵은 한 그루 괴목(槐木)이 우람하게 서 있

어서 50여리(20km)밖에서도 뚜렷하게 보였고, 제비바위와 봉수대는 거북의 등판처럼 보이고 괴목은 거북의 머리처럼 보여서 우리 고장에서는 '거북선 바위'라고도 불렀다.

그러나 1980년 경에 이 괴목이 수명이 다하여 고사(枯死)하였으므로, 이제는 '거북선 바위'의 모습도 사라지게 되었다.

연암산 봉수대는 남쪽으로 30여리 떨어진 천안군 풍세면 삼태리의 태학산(太鶴山) 봉수대의 봉황을 이어 받아서 북쪽으로 25리 떨어진 평택 망해산(望海山) 봉수대에 전달하였다.

조선왕조시대에는 봉화간(烽火干)이라는 제도를 두어 봉수군으로 종사하게 하였던 데이들은 봉수대에서 봉화(烽火) 올리는 일을 담당하였다. 봉수군을 '봉군(烽軍)' 또는 '봉졸(烽卒)'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양민(良民)으로 천역(賤役)에 종사하는 '신량역천(身良役賤)'의 신분이었다.

## 5. 승마(乘馬)

말은 기원전 2700년경부터 가축으로 길러 왔는데 몸빛은 밤색, 백색, 회색 등이 있고 다리가 기름하여 잘 달린다. 3~4세에 성숙하여 16~20세까지 번식하는데 4~6월이 번식기이고 수태(受胎)한 후 335일 만에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농경, 군사, 운반, 승용 등에 이용되며 디프테리아 혈청을 만드는 데에도 쓰인다.

옛날에는 말이 가장 신속하고 기동성이 높은 교통수단이었다. 따라서 긴급한 공문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역참(驛站)을 설치하고 파발마(擺撥馬)를 두어 이용했다. 그리고 지방에 따라서는 역(驛)과 원(院)을 설치하여 역마(驛馬)를 이용하게 했다.

조선시대 온양군 시흥역(時興驛), 아산현 장시역(長時驛), 신창현 창덕역(昌德驛)에 역마(驛馬)를 두어 공무를 띠고 가는 관원(官員)들이 이용하였으며 온양군의 신원, 송현원, 오산원, 망빈원, 애원, 임번원, 대추원, 용두원, 아산현의 요로원, 불장원, 흥인원, 신창현의 명암원, 마장원, 용정원, 신례원 등의 원(院)이 있어 공무로 지방에 내려가는 관원들의 숙식(宿食)과 아울러 말필(馬匹)의 먹이를 제공하였다.

말은 승용(乘用)으로 이용하는 한편 수송수단으로 애용되었으므로 군사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 민첩한 기동성을 지녔으므로 말은 군마(軍馬)로서 필수적이었고 기병들이 상동하는 말은 화려한 장식을 하여 그 위용을 더했다. 그리고 장차 무관(武官)으로 진출하려는 한량(閑良)이나 무변(無弁)들은 필수적으로 기마술(騎馬術)을 익혀야 했으며 무과(武科)에는 반드시 기마술을 시험하였다.

민간에서는 사람과 짐을 실어 나르는 운반수단으로 말이 애용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담마(負擔馬)이다.

부담마는 말의 등에 부담농(負擔籠)을 싣고 그 위에 사람이 같이 탈 수 있도록 꾸민 말이다. 부담농이란 의류(衣類)나 책같은 것을 담아 말 잔등에 싣는 작은 농 짝이다.

이 부담마는 남녀 구별없이 탈 수는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여자 하인이 타는 것이 원칙이며 상류층의 부녀자는 말을 탈 수 없고 다만 가마를 타고 다녔다. 그리고 하천(下賤)계급에 속하는 기생들이 먼 길을 갈 때는 말을 타고 다녔으며, 지방의 고관 행차에는 관기(官妓)한 쌍이 머리에 전립(戰笠)을 쓴 군복차림으로 말을 타고 앞에서 길을 안내하였다.

군마(軍馬)나 역마(驛馬), 또는 상류계층의 말은 화려하게 장식하였는데 그 명칭은 다음과 같다.

### 1) 굴레

마소를 부릴때 고삐를 걸쳐 엮어 매는 줄

### 2) 광안(光眼)

말 주둥이 굴레에다 둥근 눈처럼 생긴 장식물을 붙인 것

### 3) 재갈

말의 입에다 물리는 쇠로 만든 물건인데 굴레에 달렸으며 이 한 끝에 고삐를 매어 말을 부린다. '마항'이라고도 한다.

### 4) 혁(革)

'고삐'라고도 하는데 마소의 재갈에 잡아매어 끄는 줄

### 5) 가슴걸이

- 마소의 가슴에 걸쳐 안장이나 길마나 멍에에 매는 끈
- 6) 뱃대끈  
마소의 배에 걸쳐서 졸라 매는 줄
- 7) 언 치  
마소의 등에 깔아주는 방석이나 담요 같은 물건
- 8) 등자(橙子)  
말을 탔을 때 두발로 디디는 제구인데 안장에 달아서 말의 양쪽 옆구리로 늘어뜨리게 되어 있다.
- 9) 드림  
말 안장 뒤에서 허리 양쪽으로 늘어뜨린 장식물
- 10) 상모(象毛)  
말치끈 중간 쯤에다 구슬과 백로의 털 따위로 만든 장식물을 매달아 놓은 것
- 11) 말치  
말이나 당나귀의 안장 또는 소의 길마에 걸고 꼬리 밑에거는 좁다란 SKNA 막대기를 '말치'라고 부르며 이 '말치'에 연결시킨 끈을 '말치끈'이라고 부른다.
- 12) 안장(鞍裝)  
말이나 나귀 따위의 등에 얹어서 사람이 타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비단이나 가죽으로 된 마구(馬具)의 일종이다.
- 13) 주락상모(珠絡象毛)  
말 머리의 꾸밈새인데 갈기를 모숨모숨 말아 붉은 줄을 드리우고 그 끝에 붉은 털로 넓적하게 술과 비슷하게 만들어 대었다.
- 14) 갈기  
말이나 사자 따위 짐승의 목덜미에 난 긴 털인데 이것을 '갈기털'이라고 한다.
- 15) 편자  
말굽에 대어 붙이는 'U'자 모양의 쇠조각인데 '제철(蹄鐵)'이라고도 부른다. 말굽이 닳으면 말이 미끄러지거나 잘 달리지 못하므로 편자를 말굽에 대고 편자에 뚫린 10여개의 구멍에다 '대갈'을 박아 고착시킨다. '대갈'은 편자를 말굽에 신기는데 박는 징인데 '제정(蹄釘)'이라고도 부른다.
- 16) 대갈마치  
말굽 따위에 대갈을 박는데 쓰는 작은 마치이다.

## 6. 가 마

### [1] 승 교(乘轎)

승교는 2~8명의 교군(轎軍)이 멜빵으로 메고 다는 탈것인데 흔히 '가마'라고 한다. 가마에는 연(輦)·덩·초헌·남여(藍輿)·사인교(四人轎)·초교(草轎)·교여(轎輿)·용정자(龍亭子)·채여(彩輿)·보교(步轎)·장독교(帳獨轎)·장보교(帳步轎)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분에 따라 가마의 종류를 정하여 타게 되어있었다. 따라서 가마를 보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알 수 있었다. 임금은 연(輦)을 타고, 공주나 왕주는 덩을 탔으며 중 2품 이상의 고관은 초헌 또는 남여(藍輿)를 탔다. 온양 온천에는 행궁(行宮)이 있었기 때문에 왕실(王室)에서 자주온행(溫幸)을 하였고 이 때에는 서울에서 많은 고관들이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3년마다 한 차례씩 무과(武科)의 시험을 온양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많은 고관들이 온양에 행차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따라서 서울에서만 볼 수 있는 진귀한 풍물과 탈것들이 온양에 집결되었다.

#### (1) 연(輦)

왕이 거동할 때 타고 다니던 가마이다. 조선 시대의 연(輦)은 옥개(屋蓋)에 붉은 칠을 하고 주홍과 황금으로 장식하였으며 둥근 기둥 4개로 작은 집을 지어 위에 올려 놓고 사방에 붉은 난간을 달았다. 겉에는 운룡(雲龍)을 그렸으며 안에는 운봉(雲峰)을 그렸고 처마에도 여러 가지 조각을 하여 장식하였다. 종류로는 대련(大輦)·소련(小輦)·평련(平輦) 등의 세 가지가 있었다.

#### (2) 덩(德應)

공주나 옹주가 타는 승교(乘轎)인데 8명의 교군(轎軍)이 어깨에 메고 가는 가마이므로 '팔인교(八人轎)'라고도 한다. 특별히 지위가 높은 고관 대작의 가운데서 혼례를 치를 때에 신부가 탈 수도 있었다.

(3) 평교자(平轎子)

종1품 이상의 의정 대신 및 기로소(耆老所)의 당상관이 타는 가마인데 의정 대신 이상이면 평교자에 파초선(芭蕉扇)을 등뒤에서 머리 위까지 가리우도록 하고 햇빛이 뜨거울 때는 일산(日傘)을 받쳐 들었다.

(4) 쌍가마(雙駕馬)

말 두 필이 각기 앞 뒤 채를 메고 가는 가마인데 감사(監司)·종2품 이상의 벼르아치·외국에가는 사신·승지를 지낸 수령(寸令)·의주부윤(義州府君)·동래부윤(東來府尹) 등의 고관이라야만 탈 수 있었고, 서울 도성(都城)안에서는 탈 수 없었다. 이 쌍가마를 가교(駕轎)·쌍교(雙轎)·쌍마교(雙馬轎)·쌍가교(雙駕轎)등으로도 부르는데 충청감사(忠淸監司)가 온양·아산 지방을 순시할 때에 사용하였다.

(5) 초헌

종 2품 이상의 벼르아치가 타던 수레인데 아주 긴 쪼대에 외바퀴가 밑으로 달리고 두 개의 긴 채가 달려 있다. 명거(命車) 또는 목마(木馬)라고도 한다.

(6) 남녀(藍輿)

뚜껑이 없는 작은 가마인데 의자와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 위를 덮지 않아 주로 산길 등 좁은 길을 갈 때에 이용했다. 앞뒤에 각각 2사람이 어깨에 메고 있다.

(7) 사인교(四人轎)

앞뒤에 각각 두사람이한 줄로 서서 모두 네 사람이 메는 가마인데 '사린교'라고도 한다. 이 가마는 보통 여염집에서 혼례식에 신부가 타고 시집갈 때 또는 부녀자들이 나들이 할 때 타고 다녔다.

(8) 보교(步轎)

네 기둥을 세우고 사면으로 장막(帳幕)을 둘러고 뚜껑의 가운데가 솟고 네 귀가 내밀어 정자집의 지붕 모양을 하고 있다. 바탕과 기둥과 뚜껑을 모두 해체할 수 있는 조립식 가마의 일종이다.

(9) 샷갓가마

초상(初喪)중의 상제(喪制)가 타는 가마인데 구조는 보교(步轎)와 비슷한 조립식 가마이다. 사방을 흰 형겅으로 두르고 지붕에 큰 샷갓을 덮어서 꾸몄는데 초교(草轎)라고도 하였다.

(10) 독교(獨轎)

가마를 메고 갈 교군(轎軍)이 없을 때 보교(步轎)를 소의 등에 싣고 사람을 보교에 태운 후에 보교의 뒤채를 소 모는 사람이잡고 길잡이를 하며 가는 가마이다.

[2] 물건 운반용 가마

가마는 사람을 태우는 승교(乘轎)이외에 물건을 실어 나르는 운반용 가마도 있었다. 요영(腰輿)·채여(彩輿)·용정자(龍亭子)·가자(架子)등이 그 대표적인 운반용 가마이다.

(1) 요여(腰輿)

장례(葬禮)를 끝마치고 묘소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에 신주(神主)와 혼백(魂帛)을 모시고 돌아오는 작은 가마인데 앞뒤에 한사람씩 두사람이 가마채를 손으로 잡고 운반한다. 영여(靈輿)라고도한다.

(2) 채여(彩輿)

왕실의 의식 때에나 귀중품을 옮겨 싣는데 사용하던 교자(轎子)와 흡사한 기구인데 4면에는 아름다운 꽃무늬가 채색되었고 채가 달려 있어 아휴뒤에서 두 사람이 메게 되어 있다.

조선시대 왕실에는 온양 온천 행궁에 거동할 때에 이 채여도 함께 내려 왔었다.

(3) 용정자(龍亭子)

나라의 금은보화나 옥책(玉冊)등의 보물을 실어 나를 때에 사용하던 가마의 일종인데 긴 막대 위에 정자(亭子)와 비슷하게 생긴 가마를 올려 꾸미고 그 속에 담을 것을 넣어 2~4사람이 들고 다니게 되어 있다.

(4) 가자(架子)

음식을 담아 나르는 운반구인데 '가자'라고도한다. 크기는 일정하지 않으나, 너비 1m, 길이 1.5m 정도의 널바닥을 만들고 주위에 높이 20cm정도의 널쪽을 둘렀다. 앞 뒤 양쪽에 긴 막대기를 두 개씩 달아 손잡이로 삼고 가마를 메듯이 들어서 날랐다.

## 7. 글 방 (서당 : 書堂)

글방은 서당(書堂) 또는 서숙(書塾)이라고 부르는 사설교육 시설이었다. 한자(漢字)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약 2,000여년이 되었으니 이 글방의 역사도 거의 2,000여년이 될 것이다. 대개의 경우에 마름 란위로 글방을 마련하여 6~7세 어린 아이에게는 천자문(千字文)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계몽편(啓蒙篇)·동몽선습(童蒙先習)·명심보감(明心寶鑑)등의 기초적인 한문을 익혔다. 그리고 나서 문장 독해력에 따라 통감(痛鑑)·소학(小學)등을 배우게 된다.

글방의 운영 방법은 자식을 가르치고자 하는학부형들이 의논하여 5~10명 정도의 학동(學童)들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랑방을 빌어서 한문에 조예가 있는 스승을 초빙하여 훈장(訓長)으로 모신 다음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일체의 운영 경비를 학부형이 부담하였다. 대개의 경우 수업료는 곡물로 납부했는데 초여름에는 보리 1가마니 (약 60kg)였고 가을 추수후에는 벼 1가마니(약 60kg) 정도였고 춘추에 훈장의 의복 1벌씩을 공동 부담으로 면련해 주는 정도였다.

글방의 학동들은 배운 한문을 소리내어 읽고 붓으로 쓰고 또 읽은 글을 암송하며 훈장의 지시에 따라 글을 짓거나 시(詩)를 지어서 잘되고 잘못된 점을 지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글방의 교육 방법은 개별지도의 방식이었고 능력에 따라 교과목의 진도를 조절하였다. 그리고 무더운 하절기에는 시원한 정자(亭子)나 또는 모정(茅亭)에서 시(詩)나 산문(散文)등의정서적인 글이 실린 모문진보(古文眞寶)·당음(唐音)·두률(杜律)등을 읽으면서 시문(詩文)을 습작(習作)하도록 하였고 가을에서 겨울을 거쳐 봄에 이르는 기간에는 사서(四書: 대학·맹자·논어·주용)와 오경(五經: 시경·서경·역경·예기·춘추) 등의 심오한 유교의 경전을 공부하였다. 그러나 이렇나 경전들은 시골 글방에서 가르치기는쉽지 않았기 때문에 향교(鄕校)나 서원(書院) 또는 성균관(成均館) 같은 고등교육 기관에서 성년이 된 유생들이 배웠다.

서당은학교 교육이 발전하면서 점점 쇠퇴하였으며 일제 침략기에 민족정신 말살정책으로 서당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기 때문에 더욱 쇠퇴 일로를 걷다가 1945년 조국 광복과 더불어 마을마다 소규모 서당이우후 죽순처럼 다시 성황을 이루었으나 우리의 자주적인 학교 교육이 진흥하면서 서당도 점적々 쇠퇴하였으며 1950년의 6.25 전쟁을 고비로 하여 우리 고장의성당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1950년 이전에 운영되던 서당으로는 송악면 외암리의 예안 이씨(禮安李氏) 문중의 서당이 가장 유명했으며 탕정면 매곡리에서 최장환(崔章煥)선생이 지도하던 매곡 서당(梅谷書堂)과 그 이웃마을 홍학자(洪學者)가 가르치던 신평서당(新豐書堂), 그리고 명암리의 남상희(南相熙)선생이 운영하던 명암서당(鳴岩書堂)이 유명했다.

### [1] 서 수(書數)

독서한 회수(回數)를 셈하기 위해 사용했다. 기다란 봉투와 비슷하게 만들어 거죽에 눈을 두 층으로 5개씩 두 층으로 에어서 그 눈을 접었다 폄다하여 십진법(十進法)으로 셈을 하였다.

옛날의서당교육은 암기·암송을 주로 하는학습이었다. 따라서 학동들은 스승에게 배운 글을 소리내어 낭독하고 그 낭독한 회수(回數)를 서수(書數)의 눈을 접었다가 펴면서 헤아렸던 것이다. 우리 속담에 '맹자(孟子)를 일천 번 읽으면 귀신도 굴복시킨다'는 말이 있다.

이와 같이 한문학습은 반복하여 읽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했다. 서수를 '서산(書算)'이라고도 한다.

### [2] 연 적 (硯滴)

벼룩물을 담은 그릇을 연적이라고 하는데 주로 도자가로 만들었으며 쇠붙이 옥(玉), 돌 등으로 만든 것도 있다.

연적의모양은 복숭아모양, 둥근 고리모양, 네모상자모양, 오리모양, 거북모양, 물고기모양, 개구리모양, 용모양 등 여러 가지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 [3] 벼 루

벼루는 먹을 가는 문방구의 하나로서 선비에게 필수품이었고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하사품 중에서 벼루는 최상품으로 여겼으며 좋은 벼루는 대를 이어 가보(家寶)로 전수하였다.

벼루는 돌로 만든 석연(石硯), 옥으로 만든 옥연(玉硯), 도기로 만든 도연(陶硯), 기웃장으로 만든 와연(瓦硯) 등이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석연(石硯)은 청회석(靑灰硯)으로 만든 것을 최상품으로 여긴다.

우리 고장 충남의 남포(藍浦)에서 생산되는 남포연(藍浦硯)은 중국에서도 '해동연(海東硯)'이라 하여 그 명성이 높았으며 저 유명한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선생은 남포 벼루 3개가 구멍이 뚫릴 때까지 먹을 갈며 서예를 공부해서 천하 명필이 되었다는 일화가 전해 온다.

#### [4] 연 병

먹이나 먼지가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벼루의 머리에 치는 작은 병풍을 연병(硯屏)이라고 하며 옥(玉)이나 쇠붙이 또는 도자기로 만드는데 필가(筆架)를 겸한 것도 있다.

#### [5] 묵 침(墨枕)

묵침은 먹을 올려 놓을 때 받치는 받침대인데 '먹받침' 또는 '묵상(墨床)'이라고도 부른다.

먹을 아교를 녹인 물에 그을음을 반죽하여 굳혀서 마더 것인데 벼루에 물을 부은 다음 먹을 갈아서 붓으로 찍어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데에 사용하는 검은 물감이다.

#### [6] 먹 통(墨筒)

먹통을 먹물을 담은 통인데 여행을 하거나 또는 야외에서 기록을 할 때 무거운 벼루와 연적을 가지고 가기 곤란할 때에는 미리 먹물을 먹통에 넣어 가지고 가서 붓으로 먹물을 찍어 기록하기 편리하도록 고안한 것이다.

#### [7] 붓(毛筆)

붓은 짐승의 털을 추려서 원추형으로 만들어 대나무나 목축(木軸)에 고정시킨 것인데 서화(書畫)에 사용하는 용구이다. 붓에 사용되는 짐승의 털은 가을과 겨울에 잡은 것이 좋으며 호랑이·사향노루·노루·이리·여우·토끼·양·쥐·꿩꼬리털·닭털·오리털 등이 쓰이고 있다. 가장 흔히 쓰이는 것으로는 족제비의 꼬리털로 만든 황모필(黃毛筆), 노루의 겨드랑이털로 만든 장액필, 양의 털로 만든 양호필(羊毫筆), 날다람쥐의 털로 만든 청모필(靑毛筆) 등이 있다. 그리고 쥐의 수염으로 만든 서수필, 양의 수염으로 만든 양수필, 호랑이 수염으로 만든 호수필 등은 희귀한 고급 모필이다.

붓은 그 크기에 따라 명칭이 다른데 흔히 대필, 자모필, 간필, 면상필, 초필 등으로 구분하다.

#### [8] 필 낭(筆囊)

붓을 넣어 차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주머니를 필낭이라고 한다. 붓이 유달한 필기 도구였던 옛날에는 선비들이 여행을 하거나 야외의 행사에 참석할 때에는 이 필낭에다 붓을 넣어 허리에 차고 어울러 먹통에 먹물을 담아 종지와 함께 가지고 다녔다.

#### [9] 서 첩(書帖)

이름난 사람의 글씨나 명필(名筆)을 모아 엮은 책을 서첩(書帖)이라고하며 묵첩(墨帖)이라기도 한다.

서당에서는 훈장이 직접 써 주는 글씨본을 보고 서예의 초보를 익힌 다음 점차 서예기능이 진전되면 명필가의 서첩을 보고 글씨를 연마한다.

#### [10] 분 판(粉板)

분판이란 분(粉)가루를 기름에 개어서 널(판자)조각에 발라 말려서 글씨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다.

종이가 흔한 현대 사회에서는 분판이 쓸모가 없어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지만 종이 값이 매우 비싸고 귀했던 옛날에는 분판에다 붓글씨를 연습하고 나서 물걸레로 깨끗이 닦아내고 다시 그 위에 글씨 연습을하였다. 따라서 선비의 가정이면 어느 집이나 사랑방에 분판이 걸려 있었다.

#### [11] 축(軸)

축(軸)이란 종이를 세는 단위의 하나인데 한자(韓紙)는 10권을 1축이라 하고 두루

마리는 하나를 1축이라고 한다. 두루마리 1축을 사다가 펴 가면서 글을 써서 적당한 곳을 잘라 내어 필요한 곳에 사용했다. 옛날에는 종이 값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에 한하여 축을 이용했다.

#### [12] 서 판(書板)

글씨를 쓸 때에 종이 밑에 받치는 널조각을 서판이라고 한다.

방안에서는 연상(硯床)위에다 종이를 펴 놓고 글씨를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상이 없는 장소나 야외에서 글을 쓸 때에는 서판을 가지고 가서 종이를 받치고 글씨를 썼다.

### 8. 의 약 (醫藥)

#### [1] 향 약 (鄉藥)

온양·아산 지역은 북쪽으로 영인산과 연암산의 산맥이 연봉을 이루고 남쪽으로는 태학산, 배방산, 설화산, 고아덕산, 봉수산 등 우람한 산줄기가 있어 산야에 자생하는 약초가 많았다. 이것이 곧 '향약'이다.

조선왕조의 순조19년 (1819년)에 간행된 '신정아주지(新定牙州誌)'의 '풍토물산(風土物産)'조를 보면 아산현 관내에서 복령(茯苓), 황금(黃芩), 백금(白), 택사(澤瀉), 택란(澤蘭), 고삼(苦蔘), 천초, 소엽(蘇葉), 모과(木瓜), 도인(桃仁), 인진(茵蔯), 약애(藥艾), 해애(海艾), 남칠(藍漆), 지골피(地骨皮), 과루근, 하고초(夏故草), 금은화(金銀花), 하수오(何首烏), 백화사(白花蛇) 등의 약초가 산출된다고 하였으며 이들 약재 중에는 백금, 황금, 과루근, 택란, 고삼, 하고초, 도인, 모과, 금은화, 약애, 남칠, 지골피, 괴화, 소엽 등 14종은 이 고장의 토산품으로 진공(進供)하도록 되어있어 서울과 공주 감영 및 청주 병영으로 일정한 양을 바치도록 되어 있었다.

의사(醫師)의 양성 제도가 없었던 지방에서는 가업(家業)으로 이어 오는 의원(醫員)들이 진료와 처방을 하였다. 약방문에 의한 탕제(湯劑)를 투약하기도 하고 침술(針術)로써 치료하는가 하면 증기 따위는 바소라는 하는 큰 침으로 찔러 고름을 짜내는 외과적 치료를 하였다.

그러나 가난했던 대부분의 서민층에서는 약 한 첩 제대로 써 볼수 없어 이른바 '산약'이라는 민간요법에 의지하였다. 이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오는 의료 상식이나 비방(秘方)에 따라 야생하는 약초를 캐어다가 다려 먹거나 환부에 부치는 치료 방법이다.

예를 들면 음식에 체하여 배가 아프면 엇기름(보릴 싹틔워 말린 것)을 갈아서 먹었고 겨울에 감기를 앓게 되면 인동초(忍冬草)를 채취하여 박속과 함께 달여 먹었으며 어린 아이가 열이 올라 경기를 하면 나나리벌의 집을 떼다다 불어 달구어 냉수에 넣었다가 그 물을 먹도록 하는 등의 원시적인 방법이었다.

#### [2] 탕제기구(湯劑器具)

우리의 저통적인 약제를 달여서 먹는 탕제(湯劑), 가루로 만들어 물과 함께 삼키는 산제(散劑), 가루를 꿀이나 풀에 반죽하여 구슬 모양으로 둥글게 만든 환제(丸劑)등으로 나뉜다. 이러한 약제에 사용되는 기구들은 다음과 같다.

##### (1) 협도(협刀)

약재를 써서 작은 작두와 비슷한 칼인데 윗날과 아랫날을 겹쳐 대고 고두쇠를 지르며 윗날에 긴 자루를 박았다. 약에 쓰이는 나무나 풀의 껍질, 줄기, 뿌리, 열매, 잎사귀 따위를 협도로 잘게 썰어 약방문에 의거 조제해서 탕약으로 쓰기도 하고 곱게 갈아서 만든 산제나 환제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 쓰게 된다.

##### (2) 연

한약재를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기구인데 '약연'이라고도 부른다. 단단한 나무나 쇠 또는 돌로 만든다. 잘게 썬 약제를 잘 건조시키거나 볶은 것을 연의 오목한 홈에 넣고 두터우거나 원반처럼 생긴 돌의 중심에 박은 굴대를 양손에 쥐고 내리 누르면서 밀었다 당겼다 하면 약제가 부셔서 가루가 된다.

##### (3) 약탕관(藥湯罐)

탕약을 달일 때 쓰는 질그릇인데 '약탕기' 또는 '약단지'라고도 부른다. 탕약을 쇠붙이 그릇에 달이면 약효가 손실된다고 하여 반드시 질그릇에 넣어 달였다.

##### (4) 삼발이

둥근 쇠데에 발이 세 개 달린 기구인데 불위에 세워 놓거나 화로의 잿 속에 박아

놓고 약탕관, 주전자, 냄비, 작은솥, 번철 같은 것을 올려 놓고 음식이나 약을 끓이는 데에 사용한다.

(5) 다리쇠

탕약이나 음식을 끓일 때에 약탕관, 주전자, 냄비 같은 그릇을 올려 놓기 위하여 화로 위에 걸치는 기구이다. 쇠붙이로 고리같이 만들되 두귀가 길게 내밀게 되어 있다.

이 다리쇠를 '걸쇠'라고도 부른다.

(6) 호로병(葫蘆瓶)

호로병박 모양으로 만든 병인데 흔히 술이나 약을 넣어서 휴대할 때에 사용한다.

호리병박은박과에 속한 1년생 풀인데 덩굴이 뻗어 흰 빛깔의 꽃이 피고 장과(漿果)는 길쭉하며 가운데가 잘록하게 들어갔다. 박의 껍질이 단단하여 술그릇으로 사용된다.